

사역의 시작: 성령

마가복음 1:12-13

오늘의 본문

12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

13 광야에서 사십 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

마음열기와 찬양

추천 찬양: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/ 주가 일하시네

한 주간의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나, 소소한 감사 제목을 서로 나누어 봅시다.

말씀 묵상하기

1. 광야 시험 당하신 내용이 왜 이렇게 짧은가?

마가복음은 세 가지 시험의 구체적 내용과 승리보다는, 사역의 시작과 동시에 사탄의 공격도 시작되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. 사탄은 지치지 않고 일관성 있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명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.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시작할 때 끊임없는 사탄의 공격이 있음을 각오하고,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충성해야 합니다.

2. 왜 성령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시는가?

광야는 황폐하고, 고독하며, 사탄의 시험과 들짐승의 위협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할 세상을 상징합니다.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 우리의 광야 길을 도우시지만, 그 길이 평탄한 꽃길만은 아닙니다.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결코 실패하지 않음을 믿고 사명의 길을 완주해야 합니다.

3. 어떻게 해야 광야의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?

내 힘과 열정이 아닌 '오직 성령으로' 승리할 수 있습니다. 첫 사람 아담은 완벽한 에덴동산에서도 실패했으나, 예수님은 척박한 광야에서 성령으로 승리하셨습니다. 예수님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, 사탄의 불화살 같은 공격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.

삶의 적용과 깊은 나눔

적용 질문 1

나에게 찾아온 광야는 어디인가요? 나를 그 광야로 내몰아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임을 믿고 있습니까?

적용 질문 2

그 광야에서 최근 나를 찾아온 사단의 시험과 유혹은 무엇인가요? 나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그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고 있습니까?

합심기도 제목

- 주님! 내게 허락하신 광야가 어디입니까? 이제 내가 믿음으로 광야로 들어가겠습니다. 성령님 나를 이끌어주소서!
- 주님! 이 광야에서 사명의 길을 포기하게 만드는 사단의 시험과 유혹이 있습니다.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게 하소서!